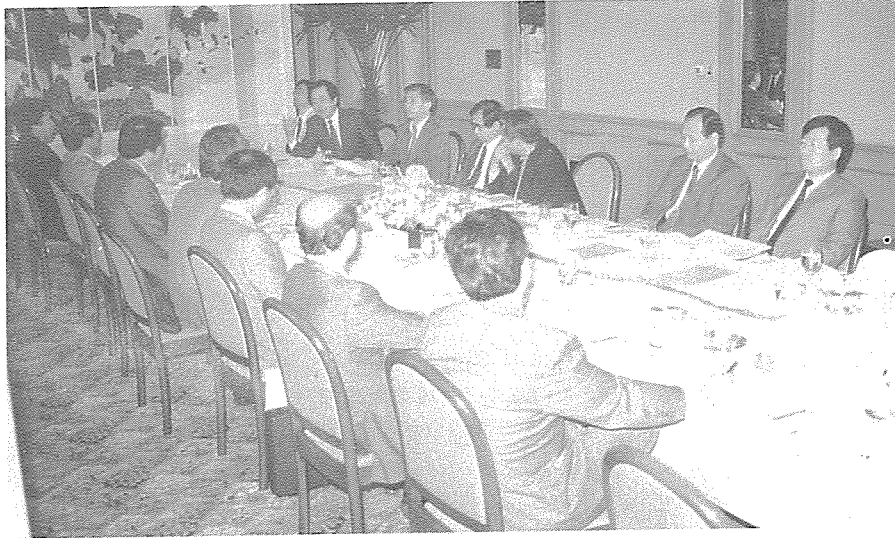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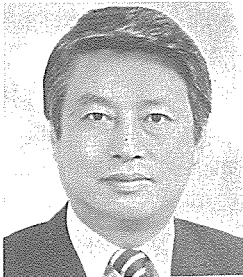
학술분야 학술분야 소식



〈대학교육심위 위원회가 대학교육의 진취적인 방향개선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尹興烈치협회장 제1차 세계 학술대회 참석

尹興烈치협회장 内外분이 FDI 차기회장인 山崎數夫(야마사기 가스오)회장의 초청을 받고 지난달 21~23일 일본동경에서 열린 바 있는 제1차 세계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치협회장 尹興烈박사〉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는 이번 세계 학술대회는 UCLA 명예회장인 「레오날드 프리드만」교수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44개의 특별강연과 7개연제의 Symposium이 강연됐다.

◎ 대학교육심의 위원회 개최

- 암기위주배격, 응용문제 10%식 출제
- 외국치대 유학생, 예비시험제 당국에 건의
- 교육배정 320점에서 340점으로 늘리기로
- 치과이사 국시원 제도 설치될 전망

91년도부터 새행될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 예년과는 달리 사고력을 요구하는 응용문제가 각

과목마다 10%선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학교육 심의위원회(위원장·崔富昺)에서는 치과 의사 國試가 그동안 의사國試보다 지나치게 합격율이 높아 최근 외국치대유학생 국내유입사태를 빚는 결과가 됐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현행 국시문제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현재 320점인 교육배정을 치과재료학 15점(신설), 치과 교정학을 32점에서 33점으로, 구강생물학을 구강조직학을 신설하여 24점으로 늘리는 등 340점으로 변경키로 하는 한편 응용문제를 각과별로 10%씩 출제키로 했다.

치협은 그동안 國試와 관련, 보사부등 관계기관에 현행 의료법 제53조 3항의 삭제 및 치과 의사 國試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崔富昺위원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계속 외국치대유학생에게는 예비시험을 치루도록 보사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으며 우선 91년도 國試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대학에서 시험문제 출제위원 및 시험문제 심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尹興烈협회장은 이날 의사국시원 제도와 관련, 머지않아 國試가 해당 의료단체에 이

관될 것에 대비하여 의협의 의사국시원과 같은 치과의사국시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히고 각 치대학장에게 이 제도를 함께 연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 공직치과의 ◎ 사회 공동주최 1990년 종합학 술대회개최준비

- 주제 : 미래치과진료의 美的중요성
- 11월 10일(토)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서치 朴祥男회장〉



〈공치 李鍾甲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공직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90년도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11월 10일(토) 여의도에 소재한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준비에 착수했다.

서치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학술대회 일정을 결정짓고 안대식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술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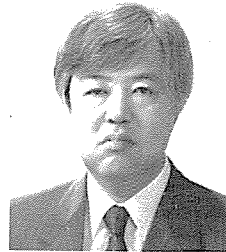
보수교육 점수 5점이 주어지는 학술대회는 특강, 심포지움, 라운드테이블디스카션(분과 학회별 개최 검토중) 등의 강연으로 치과기자 재전시회와 함께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치는 학술발표를 희망하는 회원은 연제를 초록(원고용지 5, 6매)을 오는 8월 13일까지 서치 사무국으로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 학술집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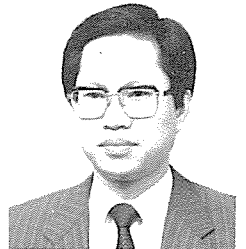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회장 李相喆)에

서는 지난 7월 6일 서울대치대 세미나실에서 학술집담회를 가진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광원 교수 : W Sedation Anesthesia for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김명래 교수 : 늑 연골이식 및 전관절 보철에 의한 악관절재건후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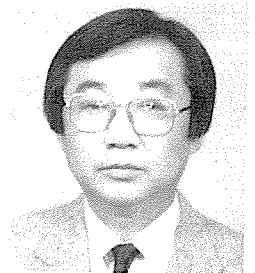
〈연자 葉光원 교수〉



〈연자 金命來 교수〉

◎ 대한치과보존학회 학술집담회 개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權赫春)에서는 지난 6월 23일 동 학회 전북 지부 주관으로 전북대 치대 회의실에서 제79회 정례 학술 집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북 지부장인 李炳允박사의 인사, 權赫春 회장의 격려사, 치협 전북지부 洪俊杓 지부장의 축사에 이어 ·이경희 박사의 「지각과민성 치아 치수조직의 Arachidonic acid 대사」, ·최기운 교수의 「근관치료의 실패원인」, ·손호현교수의 「Glass-ionomer Cement의 임상응용」 등 3개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그 강연 요점은 다음과 같다.



〈회장 權赫春 교수〉

지각과민성 치아 치수조직의
Arachidonic acid 대사

이 경 희 박사

Arachidonic acid 대사산물인 prostaglandin

은 손상된 조직부위에서 동통에 관여하는 chemical mediator로서, aspirin이나 NSAID에 의해 합성이 억제되면 말초성 진통효과가 나타난다. 과거 동통이 있는 치수염 치수조직에서 prostaglandin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으나 근래 동통을 수반하는 치수염 치수조직에서 prostaglandin의 농도가 증가하며 NSAID에 의해 합성이 억제되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으며, ZOE에 의하여도 prostaglandin을 포함하여 다른 arachidonic acid 대사산물의 농도가 저하됨을 밝혔다. 본인은 정상 치수조직, 과민성 치수조직, 염증성 치수조직에서 6-keto-PGF_{1α}, PGE₂, TXB₂, HETE_s, LTB₄의 농도를 측정하여 바 염증의 진행에 따라 이들의 농도가 증가됨을 보았고 과민성 치수조직이나 염증성 치수조직에서 이들의 합성 억제가 치수 동통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관치료의 실패원인

원광대 치대 보존학교실
최기운 교수

근관치료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진단시 고려사항
 - 1) Odontogenic lesion과 developmental lesion
 - 2) 한 치근단 병소에 인접치가 포함된 경우
 - 3) 치수-치주질환
2.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고려사항
3. 시술과정시 고려사항
 - 1) 근관와동 형성 2) 치질의 파절 가능성
 - 3) 근관길이 측정 4) 근관 치료 기구 사용
 - 5) 근관 세척 6) 오염의 방지
 - 7) 근관 충전

Glass-ionomer Cement의 임상응용

전북대 치대 보존학교실
손호현 교수

Glass-ionomer cement는 충전 후 불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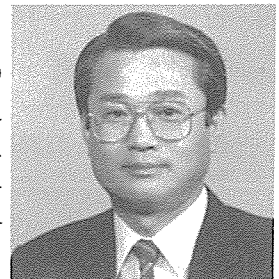
방출하여 이차우식을 억제하고, 치질에 화학적 접착을 하여 유지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건강한 치질의 삭제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치질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열팽창 계수가 치질과 유사하여 변연부 미세누출로 인한 악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생물학적 적합성이 우수하여 치수자극이 가장 적으며 심미성이 있다는 장점들로 인해 몇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glass-ionomer cement는 luting cement으로, 수복용으로, lining 또는 base용으로, core형성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glass-ionomer cement를 사용할 때 정확한 분말/액 비로 20-30초 이내에 혼합하여 혼합물이 유연할 때 와동에 충전하고 5분 정도 matrix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후 수분 접촉이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물 표면에 보호막을 도포한 후, 과잉의 충전물을 대략 제거하고 24시간 후 마지막 표면 연마를 하여야 하는 등, 다른 보존용 충전 재료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 치협학술위원회 개최

- 대학 학회 및 단체에서 관장하는 교육은 사전에 치협인준 받아 실시하는 방안 강구.

齒協의 학술위원회(위원장·崔富壽)가 지난 29일 오후 6시 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되어 내년도 제40회 종합학술대회 준비와 회원보수교육의 발전적 개선방안등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장 최부병 교수〉

위원회는 이날 오는 91년도가 치협 창립 70주년 되는 해이므로 91년 11월 1~2일간 열리는 종합학술대회 명칭을 「대한 치과의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40회 종합학술대회」로 정했으며 대회주제 및 국내외 특강연자 초청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치협학술위원회 회의장면〉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대해 거론 지부의 활성화화를 위해 지부에서 이수 해야할 의무 점수가 4점이어야 함을 재인식하는 한편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요구한 10점을 현행 분과학회 및 치과대학에서도 5점으로 되어있는 점을 감안, 5점이상의 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각 대학 및 각 학회에서 관장하는 단체 및 분회의 보수교육은 사전에 보수교육 계획안에 첨부, 치협의 인준을 받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분과학회의 발전적 개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현 치협정관내에 개원의 중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와는 별도로 대한치의학회와 같은 독립된 단체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전국 시도 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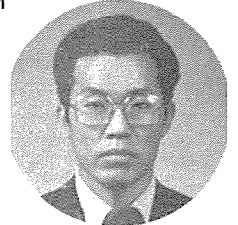
- 보수교육 결과보고 철저히행
- 연자 및 일자 변경시 1개월전에 사전 승인 받을것

각 시도지부학술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7일 12시 63빌딩에서 개최되어 회원보수교육시행에 대한 개선방안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崔富暻학술부회장은 각 시도지부 학술이사들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매교육마다 15일내에 면허번호순으로 참석결과보고서를 치협에 제출해줄 것과 매년 12월 중순까지 연중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자변경 및 보수교육 일정 변경시에는 1개월전에 치협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대한구강생물학회 정기총회



- 회장에 崔宣鎭 교수,
- 예산 1,000여만원

大韓口腔生物學會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새회장 최선진 교수>

28일 서울치대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崔宣鎭교수(서울치대)를 선임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린 총회는 40여회원이 참가, 7백 70만원의 지난 회기 결산액을 승인하고, 회원당 연회비 1만원 입회비 1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1천 3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감사에 丁東均 閔丙淳교수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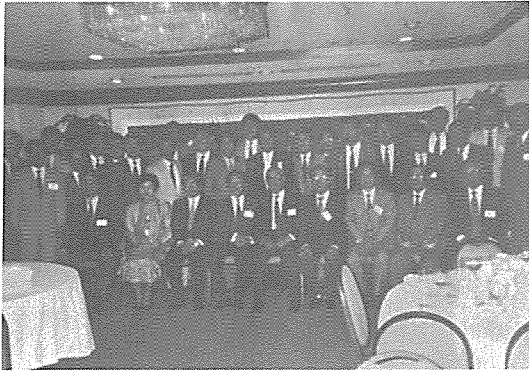
신임 崔회장은 62년 서울대생물학과 출신으로 80년부터 서울대 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韓·日 齒科研修會盛了

第11回 韓·日齒科研修會(KJF 韓國委員長 金周煥)가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 SHERATON WAKER HILL HOTEL(컨벤션센터 2층 까멜리아룸)에서 韓·日 양국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研修會에서 한국측에서 金周煥 本協會會長을 비롯하여 36名の 會員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16名の 會員이 참석하여 韓·日 양국간의 學術交流와 國民口腔保健向上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研修會는 一部 開會式에 이어 二部 學術講演으로 한국측에서 高錫勳(檀國大學校 齒科大學 教授)의 「過關咬合 DEEP OVER



〈연수회에 참가한 한·일 회원 일동〉

BITE에 대하여」가 發表되었고 일본측에서 加藤喜郎(日本齒科大學 保存學教授)의 「保存領域에 의한 最近의 審美修複에 대하여」, 増田豊(日本齒科大學 矯正學 助教授)의 「矯正臨床의 實際」, 熊澤康雄(日本齒科大學 口腔外科學 助教授)의 「顎矯正에 의한 口腔外科 對應의 基本的인 方法」에 대하여 演題가 發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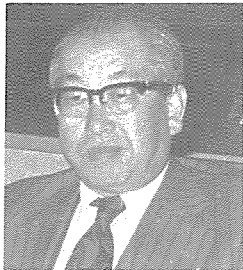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주관하여 개최되는 韓·日齒科硏修會는 韓·日間의 齒醫學 발전에 대한 학술교류 및 양국 회원들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모임이다.

◎ 구강보건협회 국제 Symposium 연차 결정

- 주제 : 구강보건을 위한 생활용품의 현황과 미래
- 오는 9월 5일 서울서 개최
- 연자 : 왕희동씨(WHO)를 위시 영국, 한국, 일본, 미국, 중국등 제국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金周煥)가 오는 9월 5일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연자 및 연제가 결정됐다.

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미국을 비롯 일본·중국 등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케 된다고 밝혔다.



〈회장 金周煥 박사〉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구강보건을 위한 생활용품의 현황과 미래」란 주제로 치뤄지는데 이날의 연자 및 연제는 다음과 같다.

왕희동씨(W.H.O)의 「서태평양 지역국가의 구강보건개발 및 구강보건용품 개발현황」을 비롯 David Purdell-Lewis씨(영국 Unilever연구소)의 「각종치약의 구강질환 예방효과」, 申承澈단국치대교수의 「구강보건용품의 선택과 활용」, 白大日 서울치대교수의 「구강보건용품의 최근 연구동향」, 丹羽源男 일본치대교수의 「치약의 처방에 따르는 특성과 문제점」, 박기철 미국인디애나치대교수의 「구강보건교육과정의 동기유발 방안」, 張博學 북경의대구강의학원강사의 「중국의 구강보건현황 및 구강보건용품 현황」.

◎ 서울대학교 중앙교육심위 위원에 이승우 교수

- 교육정책 자문기구의 과학기술 분과위 위원으로
- 치과인의 질적 향상과 치과위생사의 교육연한 상향

이승우교수(서울치대·구강진단과)는 지난 7일 문교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의 과학기술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유임됐다.

총 7개 분과위원회(△윤리이념, △과학기술, △보통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교직분과, △평생교육분과, △사학정책분과)로 구성된 중앙교육심의회는, 국가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련된 주요계획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하여 건의하는 정부의 자문기구로 그 중요성이 가일층 강조된다.

국제경쟁력에서 전문기술인력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문교부가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절할 대상학과는 보건계의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이다.

특히 이승우교수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치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치과인의 질적 향상만은 아니며,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질 또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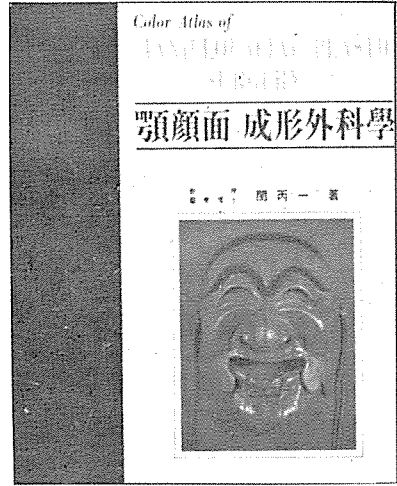
대적으로 수준이 높아야함을 강조, 치과위생사의 연한도 상향조절 되어 한다"고 피력했다.

◎ 新刊 顎顔面成形外科學 發刊

(서울大 齒大 口腔外科 閔丙一教授著)

서울齒大 閔丙一 교수가 최근 구강외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軍·보건의소에서 환자를 다루는 치과의사 초년병, 또는 임상에 전념하고 있는 개원 치과의사들을 위해 악안면영역의 술식원리와 방법등을 그림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칼라도해 「顎顔面成形外科學」을 펴냈다.

칼라도해 「顎顔面成形外科學」은 閔교수가 5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진료를 한 환자들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펴낸 것인데, 악안면성형외과의 기본술식에서 반흔제거 성형술·안면외상·안면골성형술·구순열성형술·구개성형술·안두성형술·구순열 구개열의 2차성형술·조직이식술·안면연조직변형·안면재건술의 실제등에 이르기까지 수술실기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閔교수는 50대후반 전상자들에 대한 관상유경 피부이식·골이식등을 시작으로 64년 월남 전상자진료, 교통사고로 인한 악안면손상의 재건, 그리고 68년이후 23년간 제주도등의 언청이 무료진료등 우리나라 악안면성형외과분야의 개척자적인 위치를 확고히 해 왔다.

칼라도해 「顎顔面成形外科學」은 크라운판 3백72페이지에 정가가 3만원이다.

君子출판사, 전화 : 278-3998/279-7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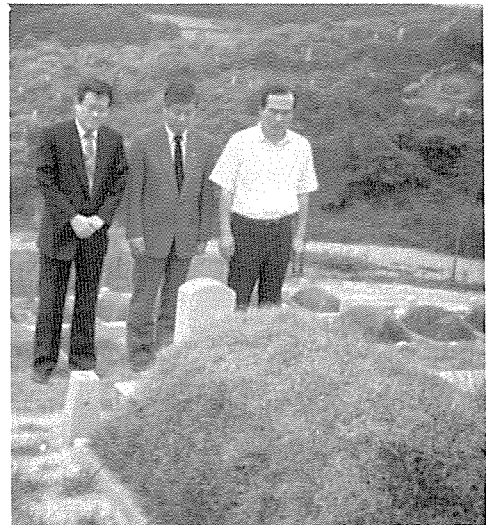
齒協會長團 故 成和洙대의원 墓地參拜

尹興烈협회장과 金一京부회장은 지난 4월 21일 대의원총회장에서 순직한 故成和洙대의원의 49제를 맞아 전주를 방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묘지를 참배했다.

尹협회장과 金부회장은 8일 전주에 있는 고인의 자택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미망인 白진주여사에게 협회의 장례비 1천 2백 41여만원과 광주지부 및 강원지부의 조위금 각 33만원 및 1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전북지부의 홍준표회장과 오경서부회장이 동행했다.

尹협회장과 金부회장은 이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고인이 안장된 효자동 공원묘지를 참배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尹興烈회장과 金一京부회장이 故 成和洙대의원 묘지를 참배하고 미망인을 위로하는 한편 각계의 조의금을 전달했다〉